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찾는 것이나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나
세계 상재를 주는 것을 허락
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능력을 키우라

03

MARCH 2015
vol.03
MONTHLY MAGAZINE

사랑
하야줬으면
나는
진정
행복
하야줬네라

유치환의 시
행복중에서
이상현 솜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행복해지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Do you
have your
own ways to
be happy?



내 허락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간디는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간디의 말처럼 상처나 스트레스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상처를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상처나 스트레스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늘 타인에 의해 자주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갖는 것이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될 것이며, 훨씬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
90.18%
‘화병 앓은 적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직장인 448명을 대상으로 화(火)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90.18%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의 화병 원인은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이 63.8%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24.89%), ‘인사 등 고과 산정에 대한 불이익’(3.62%), ‘이른 출근 및 야근으로 인한 수면 부족’(3.17%), ‘퇴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2.71%) 등을 꼽았다. 이어 ‘화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라는 물음에 34.68%는 ‘만성피로를 앓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울증(19.02%), 탈모(12.3%), 직업병(9.84%), 호흡곤란(6.26%),

공황장애(4.25%), 기타 응답(13.65%)이 그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넘어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견디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마음이 번잡스러워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마음을 머리가 아닌 ‘몸’에 집중하도록 붙잡아줘야 스트레스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 머물기

직장인 P씨는 출퇴근길 스트레스를 '명상'으로 극복하고 있다.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회사인 터라 딱딱하고 뽀얀 지하철을 한 시간 이상 타고 출근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매일 겪는 출퇴근길이라는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바꾼 이후, 사람이 많아도, 지하철을 오래 기다려도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힐링'이 되고 있다고 밝힌다. '명상'의 방법은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발끝이 지면에 닿는 감각, 오른발과 왼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지하철의 규칙적인 움직임의 소리, 바람이 자신의 볼을 스치는 느낌 등 오감에 집중한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명상의 방법으로 '몰두연습'을 말한다.

-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에 몰두한다.
- 아침 식사준비에 몰두한다.
- 아침 식사에 몰두한다.
- 가족과 함께 산다면 가족과의 대화에 몰두한다.
- 출근 때에는 걷는 감각에 몰두한다.
- 발끝이 지면에 닿는 감각, 오른쪽 다리가 확실히 이곳에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 다음 순간 오른쪽 발꿈치가 지면에 닿는 감각, 다음에는 중심을 이동해서 왼쪽 발꿈치가 지면을 떠나는 감각,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행위를 제대로 실감하고 그 행위에 몰두한다.
- 일을 할 때 눈앞에 놓인 일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몰두한다.
- 퇴근 후 저녁 식사에 몰두한다.
- 양치질에 몰두한다.
- 목욕에 몰두한다.

그 후 잠자리에 들면 마치 아침부터 밤까지 즐거운 놀이에 푹 빠져서 무아지경에 이르게 된 것처럼 상쾌한 피로감이 남아 있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이렇게 조언한다. "매일매일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면 몰두하는 능력도 점차 발달하게 되고 몰두할 때 얻어지는 장점을 실감할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상당히 흥미롭거나 재미있다면 비교적 몰두하기 쉽다. 하지만 우연히 재미없는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몰두가 안 된다거나 의욕이 떨어지고 만다면 정진하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성공법 '독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효과도 분명 다르게 나타나지만, '독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고민한다면, 먼저 독서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국의 서섹스대학교 인지심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독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했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고 측정했다. 이어 음악감상은 61%, 커피 마시는 54%, 산책은 42% 정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스 박사는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푹 빠져, 일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일상의 걱정 근심을 탈출하려면 잠시 스마트폰은 제쳐두고, '지금 여기'에서 독서에 몰입해보자.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행복감이 서서히 밀려들지도 모른다.

TIP.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주는 성분이 있을 뿐 아니라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 아몬드와 같이 먹으면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에는 섬유질과 항산화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견과류는 비타민과 아연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호두와 피스타치오는 불안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고구마	고구마는 긍정적인 생각을 증진시키는 영양소인 카로티노이드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고 한다.
고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캡사이신 성분이 대뇌를 자극시켜서 엔돌핀을 분비시켜준다. 고추를 먹을 때는 씨를 털지 말고 함께 먹는 게 좋다.
와인	와인은 중추신경계 저하제 역할을 함으로써 혈압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하지만 와인도 술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마시는 게 좋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3월호 vol.03
MONTHLY MAGAZINE, MARCH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교사 주명섭

'위대한 사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현자의 교훈처럼 '행복수업'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선생님의 소박한 사랑에서 시작됐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따듯하고, 진정성있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작지만 큰 울림을 준다. 주명섭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선생님의 가슴 따듯한 행복수업에 함께해 보자. 학창시절 나의 꿈을 응원해준 그때 그분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26

Anti aging | '6가지 푸드백신'으로 노화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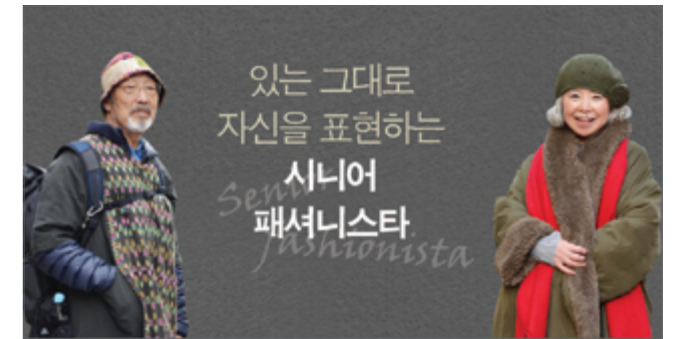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얼굴색이 좋아지고, 삶을 더욱 낙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나'를 원하는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젊어지는 '푸드 백신'에 주목해보자.



28

Alone together | 함께하는 즐거움, 소셜다이닝

최근 혼자만의 삶을 살지만 함께 식사와 요리를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등 사람들과 생산적인 삶을 공유하는 소셜다이닝이 화제다. 도심 속에서 때로는 홀로, 때로는 함께 위로 하고 나누는 소통밥상, 소셜다이닝으로 힐링하는 법.



46

지구인이야기 |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시니어 패셔니스타

일본에는 '기모코레'라는 아주 특별한 패션소가 있다. 일반 중년 여성들이 한껏 모양을 내고 자신의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패션쇼인데, 지난 2012년에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는 도쿄의 스기모 상점가에서 시작해,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매년 두 번씩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가 됐다. 올해는 4월과 6월에 2번의 쇼를 준비하고 있다.

OPENING

01

행복을 위한 질문
행복해지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INTERVIEW

08

행복을 주는 사람
'1% 긍정'의 발견이 행복 씨앗

INFO GRAPHY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주택연금 수급과 이용 상황

행복미래설계

14

H씨의 행복설계
주택연금과 금융자산의 안정추구형 운용으로 안정.적인 미래 설계

18

지식 플라자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도하면 돈 번다 주택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 주택연금

24

Do! Dream
'배움'으로 적절한 변신 기회 잡는다

26

Anti aging
'6가지 푸드백신'으로 노화 예방

28

Alone, together
함께하는 즐거움, 소셜다이닝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퇴직소득 세제 개편 내용과 영향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모디노믹스로 주목받는 인도경제

38

시장이슈
세계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점차 그 부작용에 유의할 때

42

부동산이슈
거래량 회복에 못 미치는 주택가격 상승세, 왜?

GLOBAL

46

지구인 이야기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시니어 패셔니스타

FUTURE

48

은퇴, 버킷리스트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외국어 공부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3월호 vol.03 (통권 3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3월 9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니은행 | 김한성 팀장, 최호재 팀장, 외환은행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계약 및 기획 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주명섭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1% 긍정’의 발견이 행복 씨앗

‘위대한 사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현자의 교훈처럼 ‘행복수업’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선생님의 소박한 사랑에서 시작됐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정성있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작지만 큰 울림을 준다. 주명섭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선생님의 가슴 따뜻한 행복수업에 함께 해보자. 학창시절 나의 꿈을 응원해준 그때 그분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다’는 말이 유행할 만큼 적막한 우리 사회에 훌륭한 ‘스승판타지’가 실현됐다.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뚤어진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남들이 몰라주는 재능을 발견해 그걸 꽃피우도록 돕는다. 또 스승의 한마디, 작은 실천 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한다. 물론 인간이기에 나름의 상처와 결점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가 된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없이 숭고한 존재로서 의미를 가진다.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주명섭 씨.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원리는 무엇일까.

교사생활 20여년.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생각도 많이 쌓였다. 슬픔으로 기쁨은 더 소중해졌고, 시련의 고통으로 행복의 가치는 더 오롯이 간직되었다. 속울음을 참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를 잠재워줬던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서나 삶의 애환을 느끼고 살게 된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갓 피어난 봄꽃 같은 아이들의 순박한 얼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저는 항상 관심, 배려, 이해, 눈높이, 진정성, 기다림, 만족, 무욕 같은 단어들이 내 주위에 맴돌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까이하고 살아야 모두가 즐거울지, 살면서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된 진리였습니다.”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움이 유용했고, 탐욕보다는 무욕에서 진정성이 발현되었고, 바람보다는 햇빛이 주효했다. 그렇게 부드러움, 진정성, 햇빛은 아이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고 교실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빚는 핵심 재료가 되었다.

행복수업 1교시 :

본질에 충실하라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질만 보고가자, 내용이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만 말하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자를 모토로 삼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조직에서 교사에게 닥친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현실에 매몰되어 주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더욱 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 어느새 그 고민은 희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다.

“행복수업은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학교에서의 본질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지요.”

행복수업 2교시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는 늘 아이들에게 강조한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위주로 다른 누군가에게 비교 당하거나 스스로가 친구와 비교해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경쟁은 자기 자신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꿈을 향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꿈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가며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훨씬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경쟁력인 창의성도 생기게 된다. 비교하는 문화에서는 정체성, 자존감이 떨어지고, 경쟁을 위한 이기심만 커지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제자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얼마 전 한 제자가 그를 찾아왔다. 막 수능을 치르고 대학까지 합격하고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달려온 것이다. “대학은 무슨 과에 갔니?”라고 묻자 자신 있는 목소리로 “치위생과에 갔어요”라고 대답했다. “학교는 어디에 있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순간 제자는 망설이며 “동의대예요”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조언해줬다.

“얼마 전 선생님이 치과를 방문해 고통스러웠던 치과 치료 중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행동에 큰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던다. 간호사의 진심이 담긴 태도 덕분에 치료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이 생겼고, 다음에도 그 치과를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여기에선 간호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간호사의 따뜻함, 친절함 등 본질에 충실한 모습이 결국 환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줬던 거야.”

제자에게 이러한 말들을 전해주면서 성공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마음 한가득 꿈을 안고 뒤돌아가는 제자의 씩씩한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그의 가장 행복한 순간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행복수업 3교시

1% 변화에 주목하라

‘참으로 위대한 일은 알게 모르게 천천히 일어난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를 감지하며 소통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다.

우선 그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메모해줬다가 하나하나 칭찬해주기 위해 애썼다. 특히 아이를 변화시키는 소통의 도구로 ‘칭찬과 친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았다. 많은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칭찬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은 아이들과 저를 긍정의 관계로 이어주지만, 꾸중은 부정의 관계로 굴절시켜요. 칭찬은 관계의 덧셈이 되었지만, 꾸중은 뺄셈이 되어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자발성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그는 순간순간 아이들을 세심히 관찰해 소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칭찬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씨앗을 뿌리는 본인도 점점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어졌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그의 삶에서 설레임의 순간이 될 수 있었다.

마음은 스스로 내는 빛으로 안이 훤히 비치는 공에 비유할 수 있다.

마음에게 있어 이 불빛은 모든 빛과 진리의 원천일 뿐 아니라

모든 외적인 것을 비추어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다.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빛을 굴절시키고 어지러지게 하면서

마음의 매끈한 표면을 일렁이게 하고 흐리게 한다.

마크스 아우엘리우스



행복수업 4교시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모두 통한다

그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삶의 진리로 ‘진정성’을 꼽았다. 나와 상대방이 진정성으로 소통할 때 느끼는 행복의 가치는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이들은 매우 똑똑해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봐요. 진정성 있게 대할 때 아이들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교사로서 모든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면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수업 5교시

긍정의 마음을 키워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달리하면 오히려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긍정적 사고가 생기면 즐거운 마음도 따라온다. 또 불행과 행복의 근원도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불행도, 행복도, 사랑스럽게 보는 것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긍정의 마음을 키워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필요한 긍정의 씨앗은 배려와 이해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이 커지니까 상대를 품을 수 있었고, 그것이 소통불능에서 소통가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해와 배려는 긍정의 씨앗을 마음에 심다보니 점점 행복 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욕심 버리고, 베푸는 마음 담아야

그렇게 아이들과 행복한 한 때를 보내고 있는 그에게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욕심이 화의 근원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면서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일. 욕심을 버리는 것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자녀에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이해’라는 행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다.

또 베푸는 마음을 당부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내 것에 사로잡혀 싸우고 고집 부렸던 일들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았던가. 상대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푸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는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행복수업의 마침종을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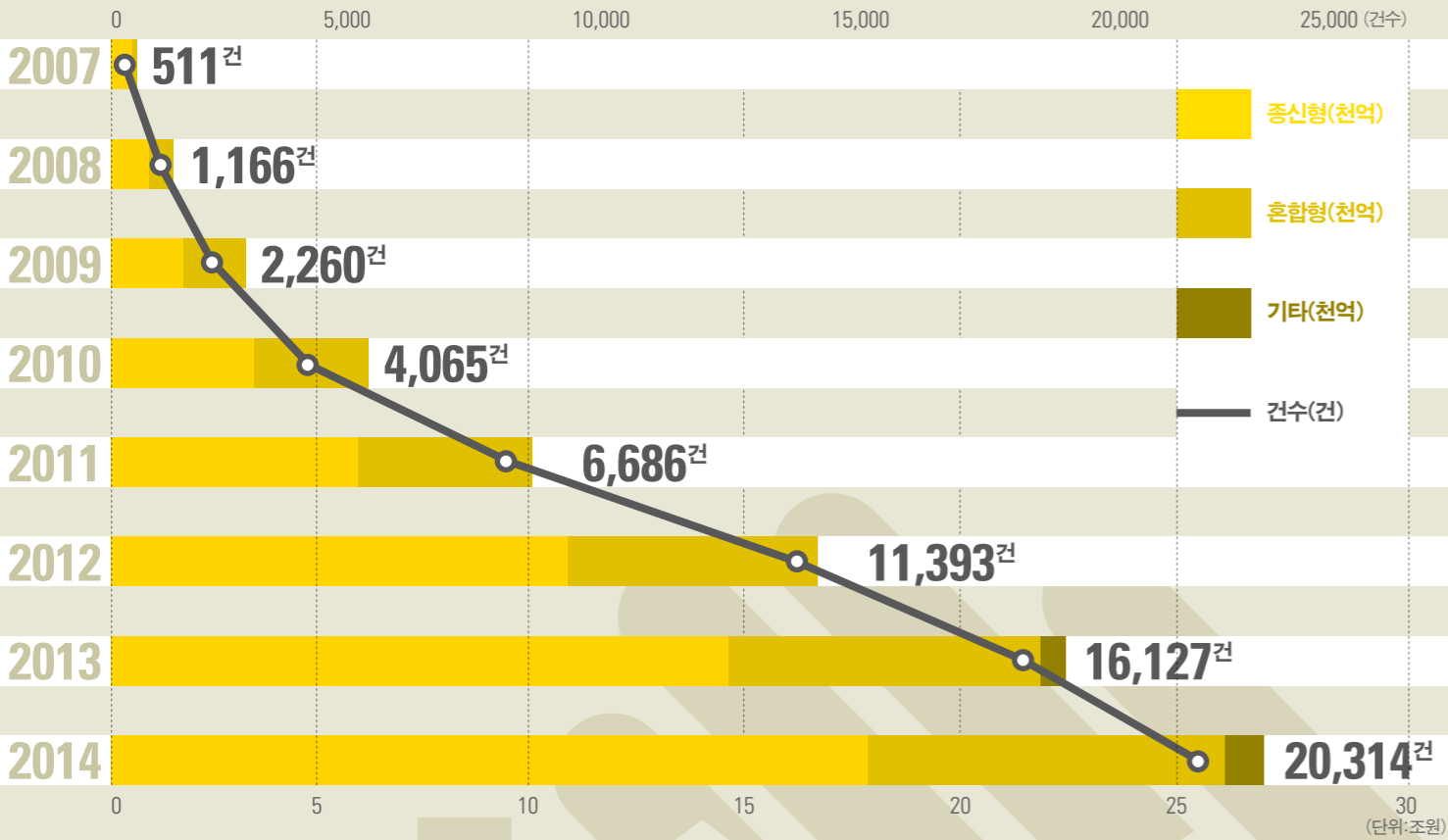


주택연금 수급과 이용 상황

주택연금 높은 증가세 시현하는 가운데 종신형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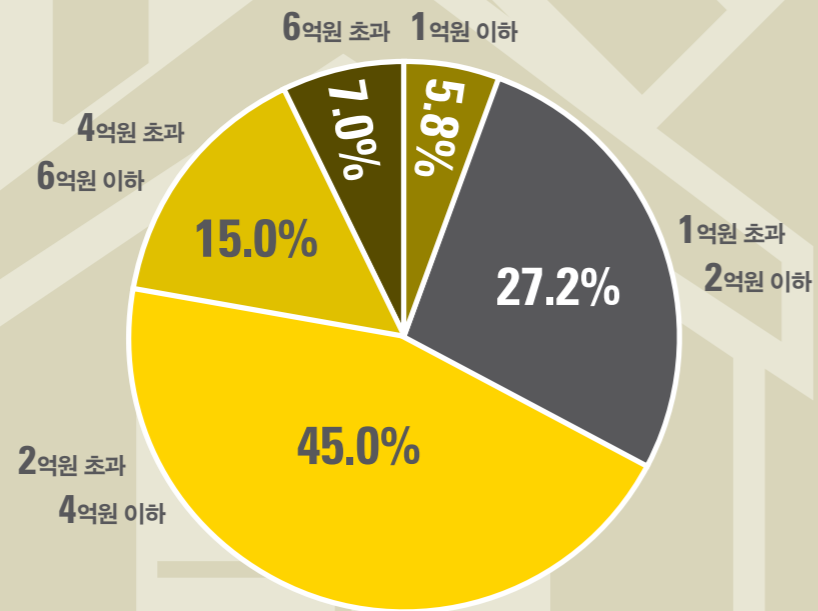
01. 주택연금의 지급유형별 보증잔액 및 건수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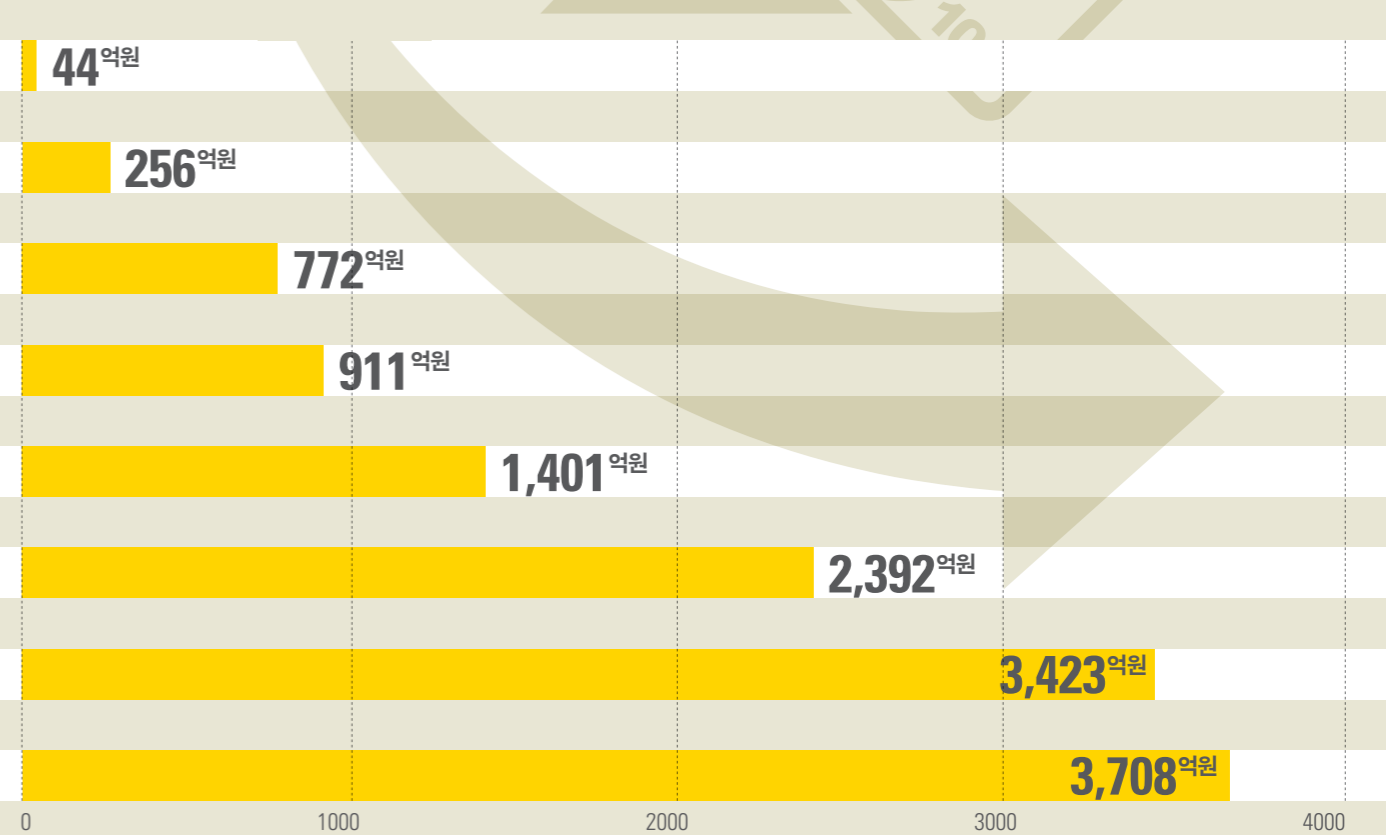
02. 주택연금 이용자 보유주택 가격 구성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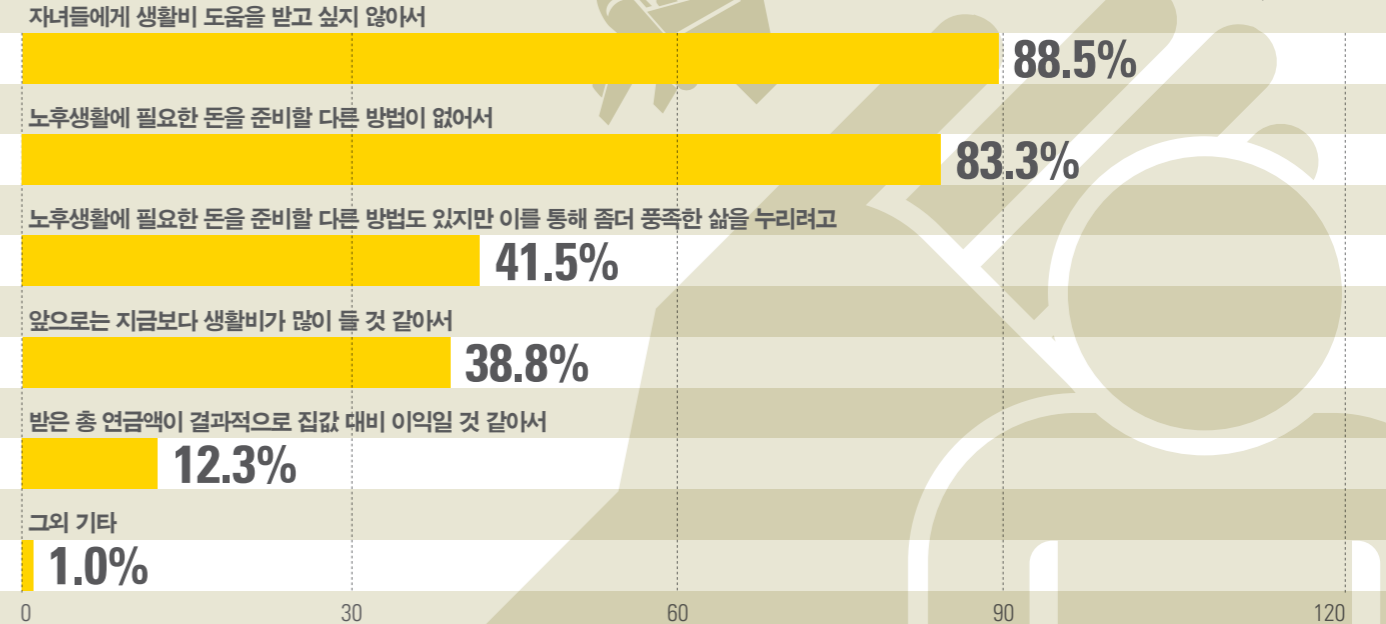
03. 주택연금 지급액 추이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04. 주택연금 이용 이유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2014년 기준, 복수응답



주택연금과 금융자산의 안정추구형 운용으로 안정적인 미래 설계

젊은 맞벌이 부부인 H씨는 현재 자녀가 없어 여유있게 생활하면서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이내에 자녀 두 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4억원 정도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구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55세까지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하고 있다. 어떻게 노후 설계를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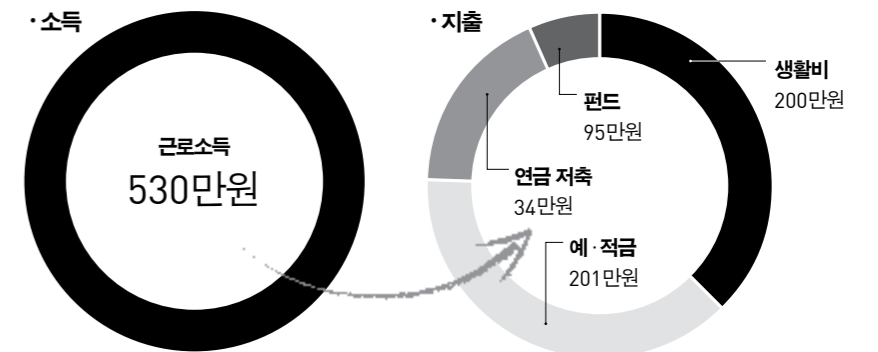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발생할 중요 이벤트 등으로 미래설계에 대해 고민이 큼

H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H씨(만 33세)는 부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 향후 3~5년 내 자녀 2명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4억원 규모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 출산 후 안정적인 교육 및 거주를 위해 5년 내에 현 시세 6억5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구입할 생각이다. 현재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6,100만원, 펀드 4,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부채는 없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월 평균 530만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00만원, 예·적금 201만원, 펀드 95만원, 연금저축 34만원이 있다. 현재 H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어 여유 있게 생활하면서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H씨는 향후 3~5년 내 자녀 출산 및 주택 구입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인 상황이다.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용, 자녀 결혼비용, 거기에 주택까지 구입하게 된다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든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전세자금	4억원
예·적금	6,100만 원
펀드 등	4,700만 원
· 부채	
순자산	5억 8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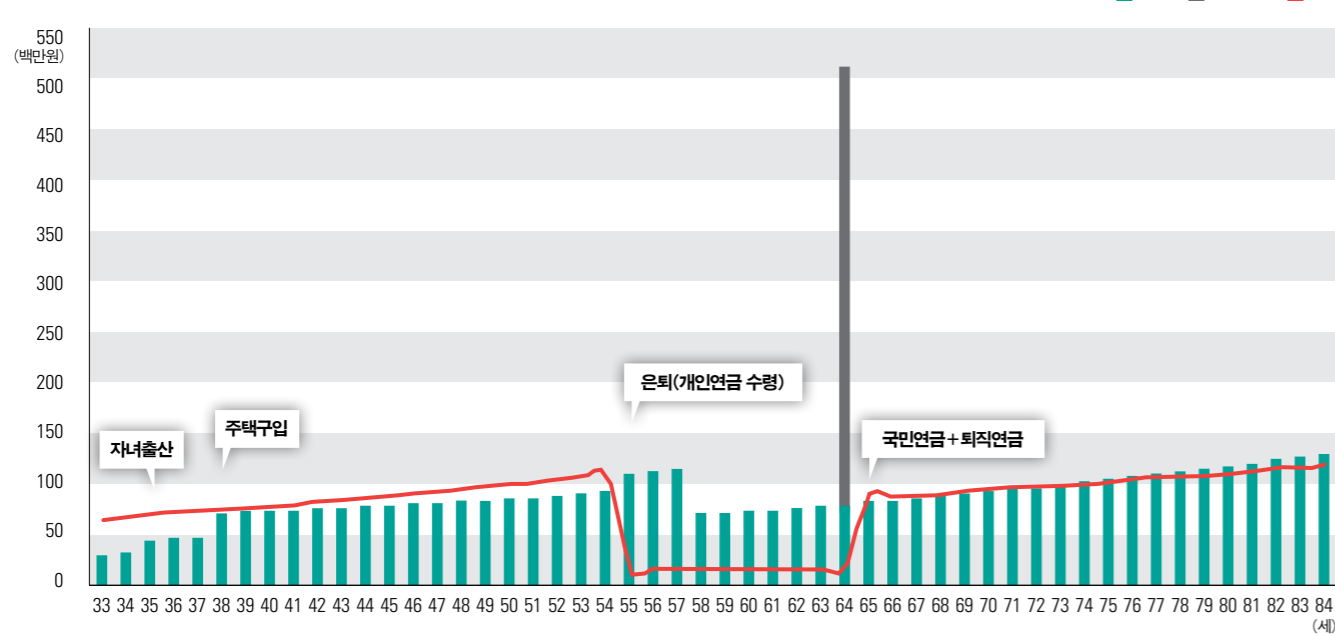
55세까지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하나 쉽지 않은 상황

H씨는 은퇴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으나 55세 정도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85세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설계를 원하고 있다. H씨는 현재 생활비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여행 등 각종 여가 생활 등을 즐기기 위해 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대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맞벌이를 지속할 예정이라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부부합산 월 2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65세부터 84세까지 수령할 생각인데 월 75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월 34만원씩 연금저축 형태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은퇴 직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55세부터 64세까지 수령할 생각이며 월 74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H씨의 미래설계 준비 상태를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통해 살펴봤다. 물가상승률은 연 2.5%를 기준으로 했으며, 수입은 임금 및 연금, 지출은 생활비, 연금저축, 자녀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포함했다. 주택 구입은 38세 때 이루어지며,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전세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5000만원은 3%의 고정금리, 20년 간 원리균등상환 방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우선 퇴직 전인 54세까지는 자녀교육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반면 55세 이후부터 64세까지는 개인연금 수령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국민연

금수령기(65세부터 85세)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으로 소폭의 자금부족이 발생한다.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상에서의 이벤트로 자녀결혼을 위한 비용이 64세에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 보면 임금소득이 발생하는 구간(54세까지)에서는 현재의 금융자산을 포함해 3억6000만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으로만 생활하게 되는 55세부터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각종 연금수령을 감안하더라도 4억8000만원이 부족하다. 또한 자녀의 결혼에 따른 비용으로 2억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3억2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주택연금 활용 및 금융자산의

안정추구형 운영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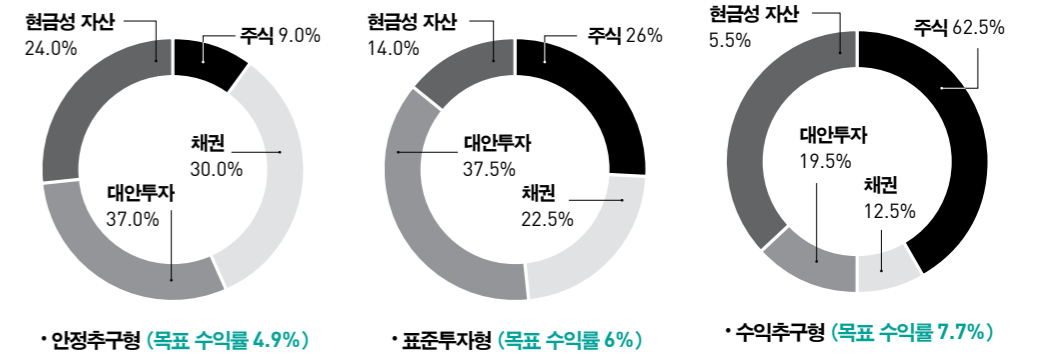
H씨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상 55세부터 84세까지 발생하는 일부 부족 자금과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65세부터 85세까지 발생하는 부족분의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일정 부분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의 총 가치 6억5000만원 중 4억5000만원에 대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월 122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잔여분은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55세부터 64세까지 발생하는 부족자금과 65세 이후 주택연금 활용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 자녀의 결혼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54세까지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적절한 운용이 요구된다.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목표수익률의 산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애 순자산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의미하는데 현재 H씨의 순자산은 전세자금 4억원과 예·적금 6,100만원과 펀드 4,700만원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예·적금과 펀드의 합인 1억800만원과 향후 54세까지 발생할 여유자금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H씨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4.78%의 목표수익률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4.78%는 안정추구형에 가까운 수익률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해당 포트폴리오에 맞춰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H씨가 미래설계를 한다면 순자산의 흐름은 은퇴 직전인 54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은퇴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64세에 자녀 결혼을 기점으로 금융자산이 완전 소진되어 이후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주택연금 활용 후 잔여 주택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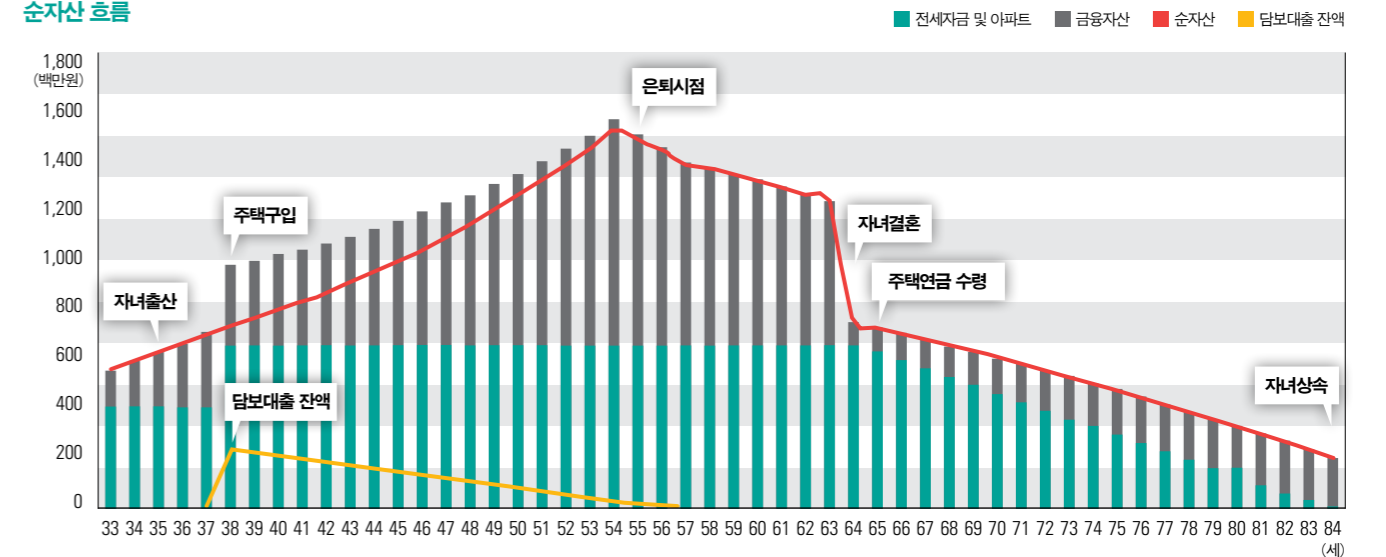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투자이야기'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 이야기", 2015.01

현금 흐름 재조정은 필요치 않으며, 금융자산 운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H씨는 현재 부채가 없고 금융자산도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 자녀 양육과 주택 매입을 위해 현재의 소비지출 부분의 재조정은 필요 없어 보인다. 다만, 38세부터 43세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인해 금융자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여유자금이 다소 빠듯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자산을 목표수익률(4.78%)로 운용한다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선 기존 금융자산과 신규로 편입되는 금융자산을 목표수익률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녀 출산, 자녀 결혼, 주택구매, 이직 및 퇴직 등 향후 상황은 계속 가변적이므로 1년에 한번 정도씩 주기적인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순자산 흐름



사회 공헌 의미 & 절세 혜택 부여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이유로 공익법인을 출연하려는 이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성실 씨(70세, 남)는 평소에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꿈은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왔다.

연말연시가 되면 구세군 냄비나 여러 구호단체에 기부를 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기부는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고 소득이 있는 기부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이씨는 단순한 일회성 현금기부가 아닌 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해 계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를 세법상으로는 '출연'이라 표현한다. 이씨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를 면제받고 이씨 사후에 상속인들이 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씨는 장학 재단에 언제 재산을 기부해야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이씨의 상속인이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해야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재산을 기부하는 장학재단의 이사현원 1/5을 초과해서 이사로 등재하면 안되며, 장학재단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 시에는 하나의 법인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만 기부 가능하다.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세 규정과 같이 이씨가 생전에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그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하나의 법인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만 기부 가능하다

사회 목적별 공익법인 운영수 (단위:개)

사업 목적별	종교단체	교육단체	사회복지 단체	기타	합계
2013	17,629	5,214	3,135	3,871	29,849
2012	17,708	5,096	3,093	3,612	29,509
2011	17,753	4,910	3,028	3,479	29,17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104년

국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회복지 기능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목적 면에서는 교육단체와 사회복지단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씨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던 사후에 상속인이 기부하던 증여세나 상속세의 면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장학재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후관리 전략을 살펴보자.

Q1.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가?

사례에서 장학재단이 이씨로부터 재산을 기부 받은 경우 직접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장학사업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 그리고 장학재단은 재산을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씨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Q2.

기부자의 친인척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등재 가능한가?

이씨 및 그의 친족은 특수관계자로 장학재단 이사 수 1/5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1% 또는 2,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한 자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수 기부자의 이사취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이씨 및 그의 친족이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 경우 급여, 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Q3.

기부자의 친인척 등이 공익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씨가 장학재단에 부동산을 기부한 경우 이씨 및 그의 친족 등은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무상 사용하면 안된다. 만약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장학재단이 기부 받은 재산은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받도록 사용해야 한다.

Q4.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으로 창출한 부수입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는가?

장학재단이 금전 등을 이씨로부터 기부 받아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두는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수입이 발생된다. 이때 장학재단은 부수입을 장학사업에 1년 이내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Q5.

공익법인이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장학재단이 이씨로부터 기부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자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 때 장학재단의 사용실적이 중요한데 매각자금을 장학사업에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장학재단이 매각자금을 장학사업에 미달하여 사용 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6.

공익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의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가?

장학재단은 이씨 및 친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정상품을 광고·홍보해서는 안된다.

Q7.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는 주무부장관이 특수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 5%까지만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총 자산 중 주식비중은 3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 시 사회공헌 역할이 크며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익목적도 유지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유지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관리까지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민법 '기여분' 제도의 논란

효도하면 돈 번다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이상 병수발하며 극진히 모셨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여분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기여분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1008조의 2).

<민법 제1008조의 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너그러워지고 있는 것이 최근 판결의 변화 양상.

부모를 모시고 효도를 하면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상속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상속인이 기여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특별히'의 의미가 사실상 모호해 이제껏 기여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사례 1.	A씨는 결혼 후 남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와 시동생들을 보살폈다. 남편 사망 후 A씨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B씨는 주말과 휴일에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생활을 돌봤으므로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씨의 주장은 타당할까?
사례 3.	C씨는 어머니의 병환 중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였으므로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과연 위와 같은 사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기여분 판례를 분석해 보면 기여분 인정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는 이를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쉽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최근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라고 판단해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은 2013년 D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D씨와 함께 살았던 장남에게 기여분으로서 40%를 인정해 줬는데 D씨는 생전에 경제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활능력이 있었는 바, 이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 변화로 볼 때, 위 사례는 모두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여분에 대한 법원 판결, 왜 변한 걸까?

기여분에 관한 법조문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던 사례가 현재에는 기여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 생활비를 지출하고 부모의 폐결핵 및 대장질환 치료를 도운 경우에도 기여분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말과 휴일에 부모를 찾아뵙고 돌본 것만으로도 기여분 인정이 되고 있다.

물론 위 판례들은 모두 하급심인 가정법원의 판례일 뿐이고,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를 모시고 찾아뵙면 기여분이 인정된다'라고 선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여분 인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 가정법원도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는 현재의 세태를 인지하고 판결을 통하여 가정의 화합을 이끌고자 고심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부모도 모시고 상속도 더 받는 바람직한 문화가 사회전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주택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대표적인 은퇴 금융상품이다. 선진국에서는 역모기지론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판매 중인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확정기간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은행의 역모기지론 상품과는 달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토록 연금지급을 보장해준다.

주택연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없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일부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기존에 수령하던 금액을 100% 동일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긴 여성의 노후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유사시 노후 생활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수령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등락에 대한 고민도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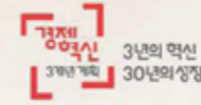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재산세의 25%(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되며,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연령 완화, 대상 주택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1%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2만3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은퇴자라면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부양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은퇴 준비가 될 수 있다.

주택연금 | 주요내용

주거소유형태	단독소유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부부공동소유	소유자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
주택보유수	1주택 소유자,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 상가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대상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지급방식	일반주택	종신토록 및 확정기간 지급 모두 가입 가능
	노인복지 주택	종신토록만 가입 가능
	복합용도 주택	종신토록 및 확정기간 지급 모두 가입 가능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종신토록방식, 정액형) ('15.2월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60세	45만원	68만원	113만원
70세	65만원	98만원	164만원
80세	101만원	151만원	252만원

- 9억원 이하의 주택* 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 수령
-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

*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

* 다주택자(합산가격 9억원 이하)도 2014.11월부터 가입가능

‘배움’으로 적절한 변신 기회 잡는다

숨가쁘게 달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한번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뇌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갈등한다. 지금 이 길이 옳은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언젠가는 펼쳐 보리라 다짐했던 오래된 꿈과 매일 이어가야 하는 밥벌이의 압박 사이에서 인생의 절박한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배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변신을 위한 첫 단계, 배움으로 차근차근 ‘내가 그리는 꿈’에 다가가고 있는 전문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독수리는 일흔 살을 살 수 있는 맹금류이지만 그 수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한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부리와 발톱이 자랄 대로 자라 굽어지고, 털이 두터워져 날개 짓을 하기 힘들어지는 시기다. 부리와 발톱과 털은 뽑으면 새로 나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을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수리는 스스로 부리를 바위에 으깨고, 발톱을 뽑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며, 힘겹게 두껍고 오래된 깃털을 뽑아 날렵한 새 깃털이 돌아오면 비로소 이후 삼십 년을 변함없이 조류의 제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래된 깃털을 뽑아내고, 새로운 깃털을 돌아오게 하는 자기와의 싸움은 비단 독수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막연함과 두려움이란 알을 깨고 나와 도전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은 삶의 또 다른 행복과 희열을 느끼게 한다.



경영대학 입학한 변리사

10여년을 인정받는 변리사로 살아온 김진철씨. 그는 긴 고민 끝에 최근 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경영컨설턴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에도 불구하고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다.

“고민이 많았죠. 과중한 업무 탓에 하는 일도, 몸도 지쳐가면서 삶의 행복은 잃어버리고, 회의감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고민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경영컨설턴트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했고, 대학원 입학에 통해 경영분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작했다. 없는 시간을 쪼개고, 잠도 줄여가며 도전한 공부는 삶의 의욕을 부추기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농학과 입학한 한의사, 자연과학 공부하는 의사

13년째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 조혁재씨. 그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얼마 전 한 온라인 대학에 입학했다. 평소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관련 분야를 배울 수 있는 농학과를 택했다. 한약의 기본재료인 약초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공부에는 끝이 없다”며 “배움 자체가 즐거워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약초를 재배해 약초 전문가로서 이후에는 일의 범위를 넓혀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전문의 현경철씨. 그는 다양한 배움의 이력을 자랑한다. 과거 환경보건학, 불어불문학을 한 대학에서 전공했고, 최근에는 다시 정보통계학과에 재학해 공부 중이다. 현씨가 의사이지만 동시에 인문학부터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의료선교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으로 분주하던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이 밀려왔다”며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꿈에 다가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담학에 도전하는 약사

1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권진희씨. 반복되는 일상에 문득 불안함, 조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근본적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직감했다. 그렇다고 불안해하며 소중하 하루를 낭비할 수는 없는 일.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몇 가지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인문학 공부, 글쓰기 공부, 마음 공부 등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최근 권씨는 한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해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권씨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과감하게 도전했다”며 “생각보다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다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기기도 하고, 스스로 답을 깨닫기도 하는 등 인생의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굵직한 원칙을 두고 변신하라

이처럼 배움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신이 요구되며, 변신의 시기에 유의해야 할 점은 굵직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책에서 꺾대를 갖고 나가는 것을 두고 ‘의도적 전략’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신해 가는 것을 두고 ‘창발적 전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제2의 인생 또한 여타의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변화와 함께 하겠지만 우직하리만큼 큰 꺾대를 세우고 전진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큰 그림을 갖고 나아가되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변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있는 배움은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도구가 아닐까.

'6가지 푸드백신'으로 노화 예방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얼굴색이 좋아지고, 삶을 더욱 낙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나'를 원하는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젊어지는 '푸드 백신'에 주목해보자.

무심코 사먹는 패스트푸드, 최고급 레스토랑에 음미하는 호화로운 요리 등 우리는 매력적이고 맛있는 음식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식습관은 '만성질환에 평생 시달리며 살 것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특히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음식은 지천에 널린 요즘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거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Food Vaccine 1. 렌틸콩



최근 이호리 콩으로 유명해진 렌틸콩은 2007년 미국의 건강 전문 잡지 헬스지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웰빙 식품. 지중해 그리스가 원산지인 고대 유럽인들이 죽으로 만들어 먹던 식재료이다. 인도에서는 렌틸콩으로 커리나 수프를 끓여 주식처럼 사용해왔다. 콩 중에서도 작고 납작한 콩으로 모양이 볼록렌즈를 닮아 렌즈콩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른 콩과류처럼 고단백 식품인 데에다, 비타민 B1, B2, 비타민C, 비타민 E, 엽산, 니아신, 비타민 K와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의 미네랄까지 5대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 완전식품이다.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10배, 바나나의 12배가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맑게 하는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증진하고 독소배출에도 탁월하다. 당뇨개선, 다이어트에도 좋다.

Food Vaccine 2. 베리류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등 모든 베리류의 과일은 뛰어난 항산화 및 건강 기능 개선 효과가 크다. 미국 농무부에서 선정한 슈퍼 푸드 10위권 안에 베리류 과일이 무려 5개나 포함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스토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블랙커런트까지 총 7가지를 '베리7공주'라고 부른다. 스토베리는 다른 베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이 들어있다. 아몬드와 닮은 피부 완성에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는 세계 대전 당시 영국 비행기 조종사들이 시력 보호를 위해 블루베리를 먹을 정도로 시력개선 및 보호 효과에 뛰어나다. 크랜베리는 유해균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도와줘 요로 감염을 막는다. 라즈베리는 섬유질과 칼슘이 풍부하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는다. 블랙베리 즉, 복분자는 체내 호르몬을 조절해 남성 정력 강화, 여성 불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궁암, 유방암 같은 여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아사이베리는 뛰어난 유해산소 흡수 능력으로 피부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블랙커런트는 블루베리보다 1.5배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다.

Food Vaccine 3. 생선류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생선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동맥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특히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형성하는 데 좋다. 또 심장과 신경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연어 대신 정어리, 홍합, 청어, 송어, 광어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Food Vaccine 4. 올리브오일



그리스인들은 요리를 할 때 올리브오일을 항상 첨가해 먹는다. 특히 올리브오일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심장질환의 위험도와 암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리를 할 때 올리브오일을 첨가하면 노화로 발생하는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물질과 폴리페놀을 체내에 공급할 수 있다.

Food Vaccine 5. 요구르트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좋은 박테리아는 장의 건강을 돕고 면역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요구르트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체내의 세균 층을 원상회복시켜주는 등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 유산균은 피부에 침투한 나쁜 균을 없애주기 때문에 여드름 예방 등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좋다. 또한 유산균이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높다.

요구르트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며, 노화에 따라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한다.

Food Vaccine 6. 녹차



허브티, 녹차, 커피 등도 적절히 섭취하면 노화방지에 좋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최고로 꼽는 것은 바로 녹차로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특히 녹차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생리활성물질의 항산화 작용, 수천가지의 화합물의 작용으로 건강과 장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추고, 암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한다. 뇌졸중, 심장, 피부손상 예방 등의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아침 운동하기 전 녹차 한 잔을 마셔보자. 플라보노이드가 30분 안에 몸에 퍼지면서 항산화 작용이 향상되어 운동으로 유해산소를 처리할 수 있다. 녹차는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혼자만의 삶을 살지만 함께 식사와 요리를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등

사람들과 생산적인 삶을 공유하는 소셜다이닝이 화제다.

도심 속에서 때로는 홀로, 때로는 함께 위로하고 나누는 소통밥상, 소셜다이닝으로 힐링하는 법.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tvN '식사를 합시다'는 소셜다이닝을 소재로 한 대표적 드라마다.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진 주인공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이처럼 소셜다이닝은 '식사'라는 매개체를 통해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말한다. 그 시작은 토론을 하며 음식을 즐겼던 고대 그리스의 식사문화인 '심포지온(Simposion)'에서 유래한다. 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류를 하는 형식이다.

다이닝으로 시작해 소셜로 확대

원래 소셜다이닝은 미국 키포크(Kinfolk)족과 함께 등장한 용어로,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다른 점은 미국에서 '다이닝(Dining)'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나라는 다이닝으로 시작해 '소셜(Social)'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식사를 함께하는 것 자체보다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함께하려는 것이다.

파티 문화가 익숙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웹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2012년에 '집밥'을 시작으로 소셜다이닝이 등장했고, 국내 소셜다이닝은 한끼의 식사와 더불어 취미 및 관심사의 공유라는 측면까지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양한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소셜 다이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소셜다이닝 업체 '집밥'은 대표적인 소셜다이닝 서비스다. 메뉴나 테마를 정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다.

또 다른 업체 '특파티'는 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 강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도 10여개의 다양한 업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정이 고픈 것"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소셜다이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외로워서' 모임에 나온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소통한다.

송길영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단독 가구주가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작업, 외로움을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해진 가운데 소셜다이닝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자의든 타의든 가족들과의 식사가 어려워 가정 내에서도 나 홀로 식사가 일상화되고 인간 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요즘에 이따말로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본질적 행복감을 다시금 느껴야 한다"며 "식사는 공복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므로 거기서 얻는 정과 유대감은 가족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와 환경과의 관계 형성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셜다이닝은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이웃과 어울려 식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의 소통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셜다이닝 서비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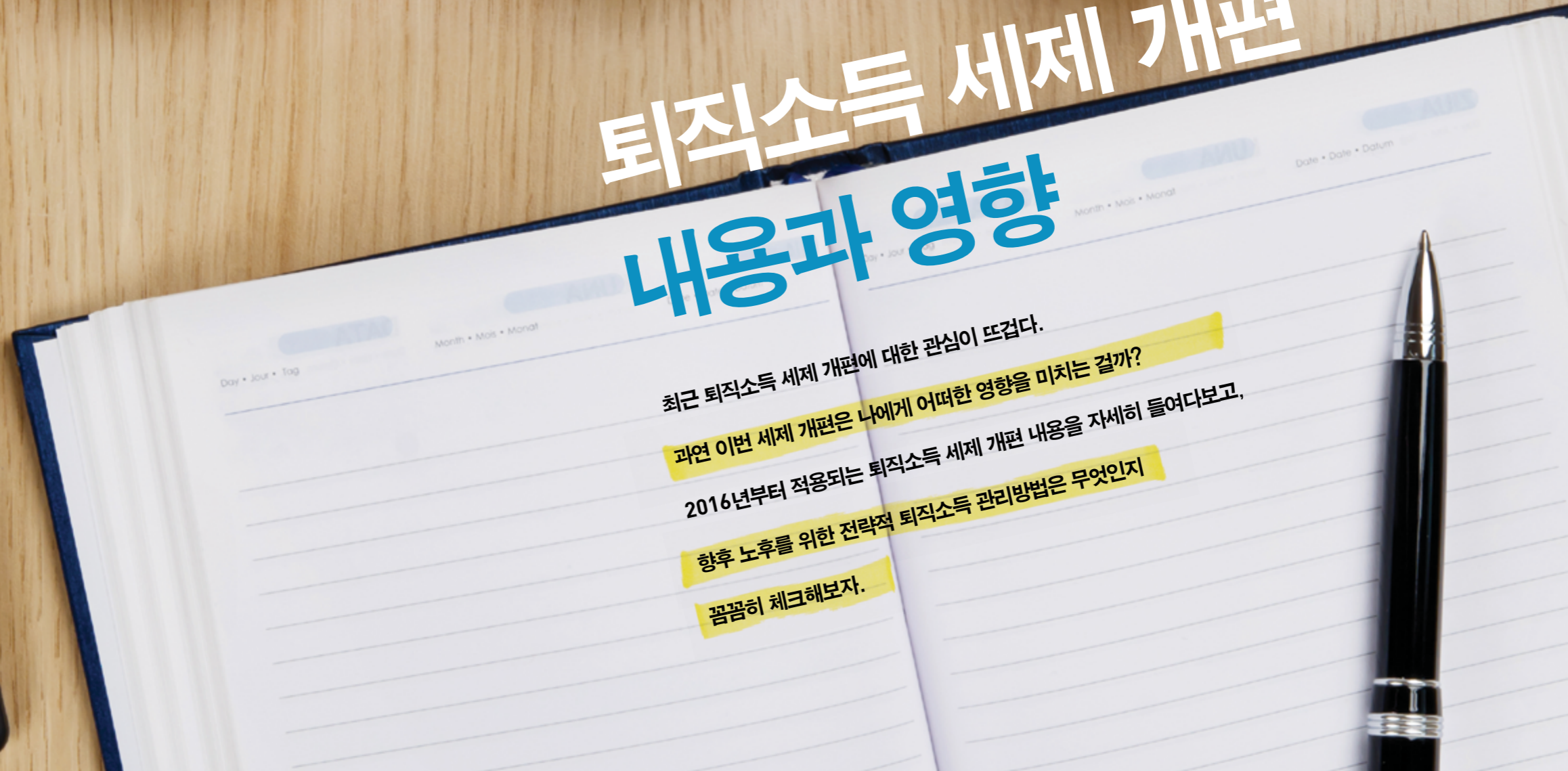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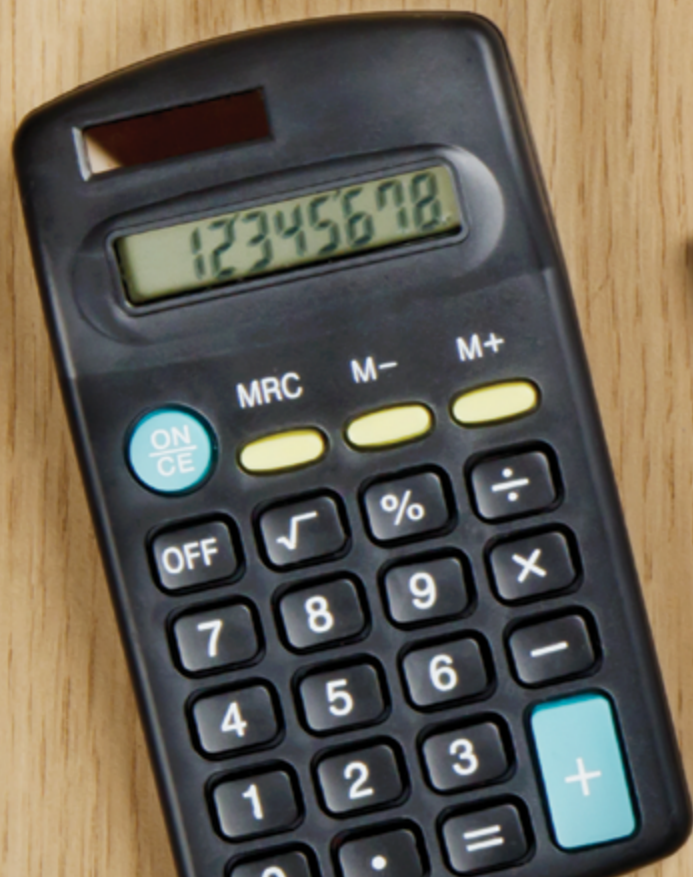
국내 최초 소셜다이닝, 집밥 •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소셜다이닝 서비스 '집밥(www.zipbob.net)'에서는 메뉴나 테마를 정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다. 누구나 모임 페이지를 열고 모임 주제와 날짜·장소를 공지할 수 있다. 모임의 주제는 다양하다. 밥만 먹는 모임,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취미활동을 즐기는 모임, 주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점심 모임,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밥터디(밥+스터디), 헌책방에서 함께 책을 읽는 독서모임 등 다양한 콘텐츠 들이 있다.

사람을 여행하자, 오늘의 약속 • 소셜다이닝 서비스 '오늘의약속(www.todaypromise.net)'은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함께 만화보고 식사하실 분~', '공원 산책 후 커피 한잔하실 분~' 등 오늘의 약속에서는 먹는 것 외에도 여행을 가거나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고 누구든 원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안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외로운 점심을 점수한다, 런치위드미 • '런치위드미(www.lunchwithme.net)'는 함께 점심을 먹을 사람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도상에서 본인이 약속을 원하는 장소 및 시간을 적으면, 근처의 사람을 추천해 본인이 적은 이메일로 보내줘 약속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퇴직소득 세제 개편 내용과 영향



최근 퇴직소득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 세제 개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향후 노후를 위한 전략적 퇴직소득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보자.

연초부터 지난 연말에 개편되어 2016년부터 적용될 퇴직소득 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정책당국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목적으로 퇴직소득 세제를 지난해 개편했다.

개편된 퇴직소득 세제는 2016년부터 현재도와 병행해 적용되는데, 개편 세법의 적용비중은 매년 20% 순차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완전히 개정 퇴직소득 세법에 의해서만 퇴직소득세가 산출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영향은 2016년부터 완전히 개편 퇴직소득 세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자신의 퇴직소득을 한번 챙겨보고, 향후 노후를 위해 절세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퇴직소득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소득세법, 정률공제 폐지대신 차등공제 도입

개편된 퇴직소득 세제를 보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퇴직소득 세제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첫째, 현재 퇴직소득 세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률공제를 폐지했다. 현재 퇴직소득 세제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근속연수 공제와 더불어 퇴직소득의 40%를 공제해주는 정률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률공제의 폐지는 이러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분연승 상수를 5에서 12로 높였다. 여기서 연분연승이란 총퇴직소득을 연분(근속연수로 나누기)해 1년의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고, 다시 여기에 연승(근속연수로 곱하기)하여 총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연분연승 상수는 과세대상 소득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퇴직소득세의 확대를 수반하게 된다. 연분연승 상수는 퇴직소득세의 산출과정에서 2회 적용되는데 한 번은 연분과정에서 과세대상 퇴직소득의 확대를 위해 적용되고, 다른 한 번은 최종 퇴직소득세의 산출을 위한 연승과정에서 적용되게 된다(퇴직소득 세제개편 내용 참조). 개편체제에서 연분연승 상수가 5에서 12로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세율이 적용될 연분 퇴직소득이 확대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이어져 퇴직소득세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환산퇴직소득에 따른 차등공제(800만원 이하는 100%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공제방식 적용-소득세법 제 48조)신설이다. 이는 정률공제 대신 신설된 것으로 연분연승에 의해 환산된 퇴직소득에 따라 차등해 퇴직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800만원 이하는 100%를 공제해주는 반면 가장 높은 환산퇴직소득인 3억원 초과인 경우는 35%만 공제해주는 차등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등공제는 연분연승에 의해 확대된 퇴직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차등공제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고소득자들은 낮은 환산소득 공제율의 적용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강화되게 된다.

이와 같이 퇴직소득 세제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고소득자의 급격한 세부담의 영향이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 세법이 적용되는 2016년부터 개편세법의 적용비중을 매년 20%씩 높여 적용하도록 하여 2020년에 완전적용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 대신 연금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할 경우 세액의 30%를 경감하도록 했다(소득세법 제 1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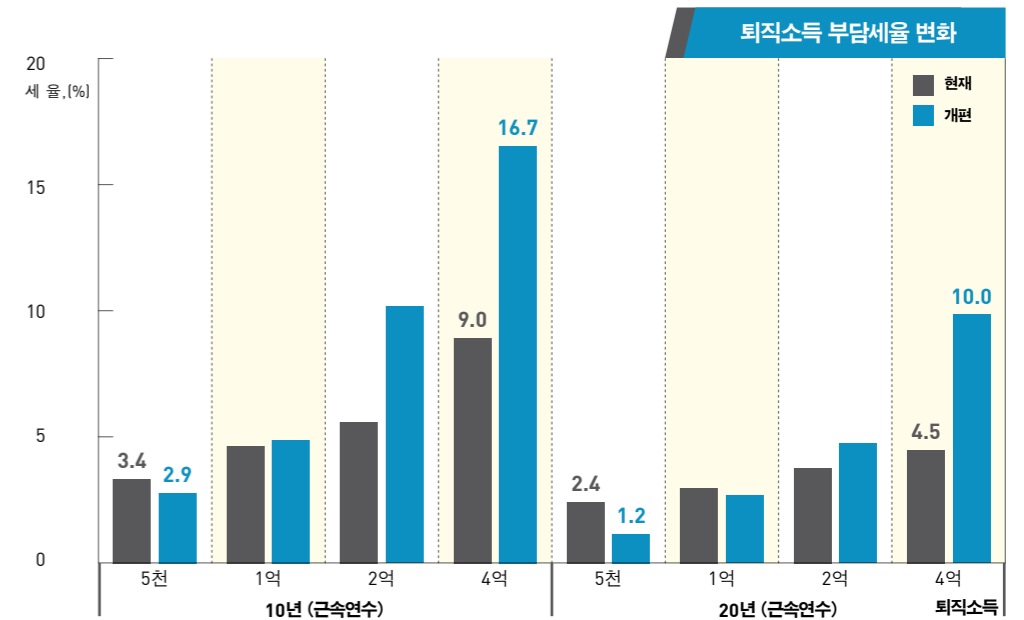
낮은 퇴직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vs 높은 퇴직소득자의 세부담 크게 확대

퇴직소득 세제 개편 내용		
현재 퇴직소득 세제	개편 퇴직소득 세제	개편 주의내용
A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정률공제	A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퇴직소득의 40% 정률공제 폐지
B = A × 5 ÷ 근속연수	B = A × 12 ÷ 근속연수	□ 연분연승 상수의 확대(5 → 12)
C = B × 소득세율	C = B - 환산퇴직소득에 따른 차등공제	□ 환산퇴직 소득에 따른 차등공제 신설
퇴직소득세 = C ÷ 5 × 근속연수	D = C × 소득세율	□ 2016년 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퇴직소득세 = D ÷ 12 × 근속연수	세법의 적용 비중을 20%씩
		높여 완전적용

퇴직소득 세제의 개편에 의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산출해 보면 8,000만원 미만의 퇴직소득자는 세부담율이 경감되는 반면 8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현행 세제 하에서의 세부담율이 3.4%인 반면 개편 세제에서는 2.9%로 낮아졌다. 퇴직소득이 2억원인 경우는 세부담율이 5.6%에서 10.2%로 높아졌고, 4억원인 경우는 세부담율이 9.0%에서 16.7%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근속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의 경감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환산 소득공제의 차별화 영향으로 1억2,000만원 미만의 퇴직소득자는 세부담율이 현재에 비해 낮아지는 반면 1억2,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소득이 5천만원인 근로자는 세부담율이 2.4%에서 1.2%로 낮아졌고, 1억원인 경우는 세부담율이 3.1%에서 2.7%로 높아졌다. 반면 4억원인 경우는 세부담율이 4.5%에서 10.0%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15년인 경우는 1억



용어설명: 현재 부담세율은 현행 세제하에서의 산출세율이고, 개편세율은 완전적용 했을 때의 산출세율, 부담세율 산출은 2016년 기준

퇴직소득 세제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고소득자의 급격한 세부담의 영향이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 세법이 적용되는 2016년부터 개편 세법의 적용비율을 매년 20%씩 높여 적용하도록 하여 2020년에 완전적용 되도록 하고 있다.

원, 근속기간이 30년인 경우는 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증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개편세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세법의 적용비율을 20%씩 확대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완전 적용되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10년인 근로소득자가 5,000만원의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세부담은 2016년 3.3%에서 2018년에는 3.1%, 2020년에는 2.9%로 낮아진다. 반면 4억원의 퇴직소득자라면 세부담은 2016년 10.6%에서 2018년에는 13.6%, 2020년에는 16.7%로 높아지게 된다.

개편 세제 시행에 앞서 퇴직소득의 연금화 등 선제적인 퇴직소득 관리전략 필요

향후 근로자들은 개편퇴직소득 세제의 시행이 2016년인 점을 감안해 2015년에 퇴직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퇴직소득은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대응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자들은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화해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에서 퇴직소득을 연금화해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년부터 적용). 이렇게 연금화해 수령할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인 근로자가 5,000만원의 퇴직소득이 발생할 경우 개편세율 기준으로 적용세율은 2.9%에서 2.0% 낮아지고, 4억원의 퇴직소득자는 16.7%에서 11.7%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자산의 운용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연금수령 시점으로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적용세율도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5%로 낮게 적용되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일시금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소득의 정산시점을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고려해 봐야 한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2016년 개편 퇴직소득 세제가 시행되기 전에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의 경우 퇴직소득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특히 임원의 경우 2015년까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2016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더욱 절세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는 개편 퇴직소득 세제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간정산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 개편 퇴직소득 세제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퇴직소득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재원으로써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해 개편 퇴직소득 세제의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퇴직소득 관리를 위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어느 것을 먼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필요한 돈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시 암 발생률 3명중 1명
(통계청)
뇌혈관질환 진료환자 50대 이후 8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부부 월 137만원
개인 월 83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제4차보고서 2014년)

돌려 받고, 보장 받고, 가족 선물 Plan이 가능한

무배당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Top3

건강보험(보장성)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디노믹스로 주목받는 인도경제

인도를 주목하라. 인도경제의 앞날에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장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바탕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가 있다. 모디노믹스로 주목받는 인도경제를 들여다본다.

성장둔화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세로 주목받는 인도경제

인도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계방식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인도경제는 지난해 7.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국가가 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국이 성장둔화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보인 성과라는 점에서 인도의 높은 성장세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도경제의 앞날에도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의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도경제의 성장을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조정했다. IMF는 2017년까지 주요국 중 인도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스탠다드앤amp;P(S&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국가로 인도를 꼽았다.

반면 그동안 브릭스(BRICs)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목을 받았던 국가들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 개혁·개방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중국경제는 구조조정과 신용리스크 억제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제재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추락했으며 경기도 침체되고 있다. 브라질은 마이너스 성장과 고물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남아공은 비효율과 부정부패로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인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금융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센섹스(Sensex) 지수가 연일 사상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인도 루피 환율은 달러화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다. 불과 2년 전에 미(美) 연준의 출구전략 시사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루피·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다.

모디노믹스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친시장·친기업 정책

인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바탕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가 있다. 중도우파인 인도국민당(BJP)은 2014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얻어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인도국민당의 압승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탁월한 경제개발 성과를 보인 모디에 대한 지지에 힘입은 것이다.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인도국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결과는 인도사회에서 정치, 종교, 카스트보다 경제문제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도국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199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과감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채택해 구자라트를 발전시키면서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관개시설 정비 등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켰으며, 전력과 도로 등 인프라를 정비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의 공업단지 및 경제특구를 통해 국내외 자본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을 달성에 성공했다. 이는 동기간 인도 전체 성장률인 7.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모디노믹스'는 이와 같은 구자라트에서의 성공모델(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적용하고자 하는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모디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① 세제·노동법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② 수출주도 제조업 육성, ③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달성과 함께 규제완화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관리·감독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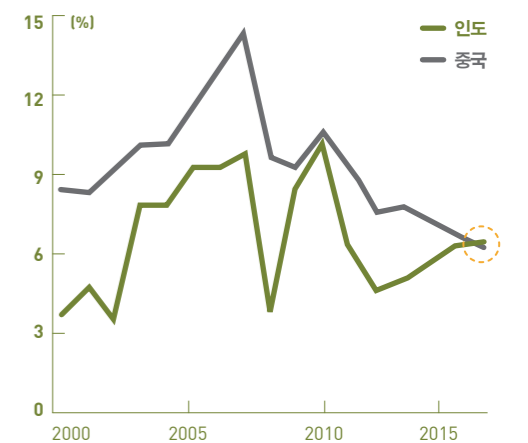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가계소비 및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도 동반 확장하는 등 인도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둔화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대로 억제되고 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모디 정권답게 간접세 중심의 세수 확대,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자산 매각을 통한 세수외 소득확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고 정부지출은 감축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 대비 3%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인 반면, 긴축기조를 유지하던 인도 중앙은행(RBI)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영향으로 기준금리와 법정유동성비율(SLR)을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기조를 완화로 선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모디노믹스 주요내용

분야	핵심공약
인프라 개발	- IT 기반시설 갖춘 스마트 도시 100개 건설 - 발전시설 확충, 전기보급률 개선 - 고속철도 건설
농업	IT연계 스마트 농업, 농산물 가격 안정화
세금	복잡한 조세제도 간소화
초등교육	초등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외부문	경제외교 집중, 인도기업의 수출확대에 중점
외국인 직접투자	소매유통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반대

• 중국 및 인도 성장률 비교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도는 중국 다음가는 인구대국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중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인도경제가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데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신용버블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빈자리를 인도가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빈자리를 인도가 메울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지난 1980년대 이후 인도경제는 노동 및 교육의 질 향상, 노동인구 증가, 사회기반시설 투자, 법과 규제 정비, 정보통신 기술발달 등에 힘입어 연평균 6.3%의 고성장을 달성해 왔다. 2011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감소와 정책적 비효율성 등으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기도 했으나, 12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과 소비시장 부상,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동의 질적·양적 증가세, 투자능력 회복,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보통신 성장으로 인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 인도경제가 연평균 6.5%(통계방식 변화 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도경제의 앞날이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부족한 인프라 환경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개선해야 하며, 정치적 안정도 필요하다. 실제로 인도는 정책 불투명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이나 아세안(ASEAN) 국가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홍콩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부정부패, 과도한 규제, 부실한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기업 투자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전력, 통신, 항만, 철도, 도로 등의 부문에 GDP 대비 8%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도로연장 세계 2위, 철도연장 세계 4위, 전력생산 세계 6위, 인터넷 이용자 세계 6위, 수로연장 세계 9위로 인프라 규모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빈번한 철도사고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도로망 낙후 및 관리부실, 만성적인 전력부족 등의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모디 총리의 개혁이 의도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당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인도국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24%)에서는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권력이 강한 가운데 여당 계열의 주정부(총 29개 중 8개 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만성적이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이 2013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75bp 인상(7.25% → 8.00%)하고 때마침 국제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저유가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년 이상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국의 성장엔진이 점차 식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투자비중 하락, 위안화 절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도는 중국 다음가는 인구대국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중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인도경제가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데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신용버블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빈자리를 인도가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점차 그 부작용에 유의할 때

최근 세계 각국의 통화완화 행보는 점점 강도가 커진 것은 물론 방식이 다양화 되고, 시행 국가 수도 확대되는 등 '경쟁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과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파급경로가 훼손된 가운데 경쟁적 통화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전면적인 양적완화에 돌입한 것은 물론, 덴마크는 4차레나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에서도 지급준비율에 이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었다. 게다가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각각 최저환율제 폐지와 환율밴드 기술기 축소를 단행했고, 스웨덴은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융완화 등의 방식으로 올 들어 적어도 20개국 이상이 통화완화에 착수했다. 심지어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연말의 금리인상 조치를 뒤집고 있다.

I. 세계적으로 경쟁적 통화완화 본격화

이처럼 세계적인 통화완화 행보는 무엇보다 경제전망의 지속적인 하향조정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을 당초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지난 10월 4.0%에서 3.8%로 전망을 하향조정한 데 이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 유가 급락과 맞물리어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통화완화에 가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향후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경기 및 인플레이션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연내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유력시 되는 실정이다.

최근의 통화완화 행보를 보면, 그 강도가 커진 것은 물론 방식이 다양화되고, 나아가 시행 국가 수도 확대되면서 일종의 '경쟁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또 기타 유럽 국가들의 통화완화는 ECB의 전면적 양적완화 시행과 맞물린 것이었다. 사실 ECB에 이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은 아예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사실상의 환율조정으로 맞불 작전에 나섰고, 신흥국·중소국까지 연이어 통화완화에 착수했다.

올 들어 경쟁적 통화완화 행진

금리인하		
국가	시점	내용
우즈베키스탄	1/1	10 → 9%
루마니아	1/8, 2/4	2.75 → 2.25%
인도	1/15	8.0 → 7.75%
이집트	1/15	9.25 → 8.75%
스위스	1/15	-0.25 → -0.75%
페루	1/15	3.5 → 3.25%
덴마크	1/20, 22, 29, 2/5	-0.05 → -0.75%
터키	1/20	8.25 → 7.75%
캐나다	1/21	1.0 → 0.75%
파키스탄	1/24	9.5 → 8.5%
알바니아	1/28	2.25 → 2.0%
러시아	1/30	17 → 15%
호주	2/3	2.5 → 2.25%
요르단	2/3	4.25 → 4.0%
스웨덴	2/12	0.0 → 0.1%
인도네시아	2/17	7.75 → 7.5%
이스라엘	2/23	0.25 → 0.1%
중국	2/28	2.75 → 2.5%

환율조정		
국가	시점	내용
스위스	1/15	최저 환율제 폐기
싱가포르	1/28	환율밴드 기물기 축소

양적완화		
국가	시점	내용
유로존	1/22	1조 1,400억 유로 양적완화
스웨덴	2/12	100억 크로나 양적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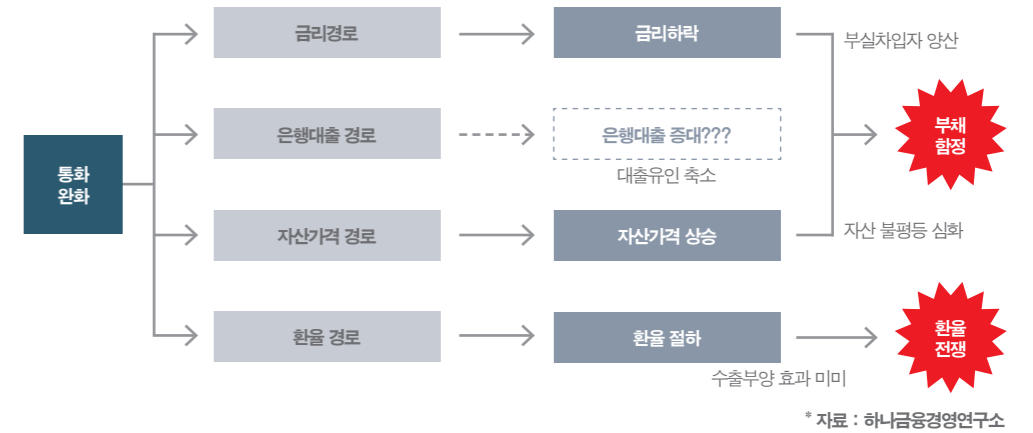
금융완화		
국가	시점	내용
인도	2/3	법정유동성비율 인하
중국	2/4	지급준비율 인하

* 자료 : 국내외 언론 종합

II. 환율전쟁과 부채합정의 위험 부각

그렇다면 이처럼 세계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는 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 본래 금리인하 등의 통화완화는 크게 네 가지 경로, 즉 금리 경로(금리하락)와 은행대출 경로(대출수요 증대), 자산 가격 경로(주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경로(통화가치 하락)를 통해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부양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각종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우선 금리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착 소비는 늘지 않고 '예비적 저축'과 같은 일종의 '화폐 퇴장'이 확산되는 한편, 대부분 고수익을 좇은 투기성 투자로 전용되면서 자산버블과 부채 누증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통화가치 하락 역시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일종의 '환율전쟁' 양상이 전개될 뿐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파급경로가 훼손된 가운데 경쟁적 통화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주요국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대내 경기침체 위험이나 디플레이션 부담을 대외로 전가(수출)시키는 '근린공평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는 그동안의 엔저(低) 가속 및 유로 급락 등과 맞물려 환율전쟁 우려를 부각시키며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동성 충격은 환율에만 그치지 않고, 금리, 상품(원자재), 주식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른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 부채 감축) 압력이 커지면서, 이를 지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의 역할이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신흥시장, 특히 기업 부문의 부채를 중심으로 세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Releveraging)다. 반면 경제성장 등의 부채상환능력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지탱하기 위해 다시 통화완화책이 요구되는 일종의 악순환, 즉 '부채합정'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경쟁적 통화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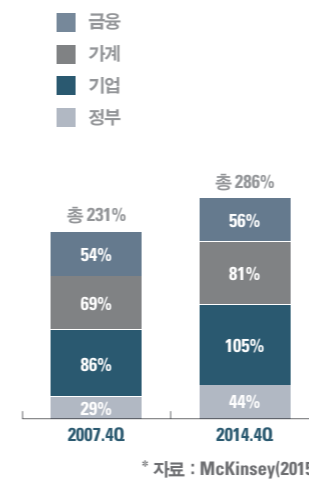
경쟁적 통화완화의 파급경로



* 자료 : 하니금융경영연구소

III. 국내 동반 금리인하 여지는 아직 제한적

국내 부채의 증가 추세



* 자료 : McKinsey(2015)

세계적으로 통화완화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신흥국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금리나 통화 여건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차별적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시장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정책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2013년 연준발(發)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 축소)' 우려 속에 신흥시장 전반이 요동을 친 결과 정책금리가 대폭 인상되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근래 신흥시장의 금리인하는 당시의 행보를 되돌리는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최근의 통화완화 행진 역시 각국이나 지역마다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ECB 행보에 연계된 조치인 반면, 러시아나 캐나다, 호주, 페루 등 원자재 수출국은 유가 하락 등과 맞물린 영향이 강하고, 싱가포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 정도만 유동성 확대나 경기 부양 차원의 순수한 의미의 통화부양에 가깝다. 한편 터키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도 큰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인하라는 지적도 많다. 외견상 '경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쟁적 통화완화에 따른 전염효과, 특히 환율전쟁의 위험이나 부담은 크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부채 측면이다. 사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사회에서는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특히 국제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글로벌 부채조정 현황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취약한 7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추가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쟁적 통화완화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동반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점차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4분기 예상외 경기부진(전기비 0.4% 성장)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경기회복이 여의치 않은 처지다. 결국 한국은행은 1/4분기 경기 흐름을 지켜본 후, 경기나 물가 둔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때에나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때에도 가계부채 급증이나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거래량 회복에 못 미치는 주택가격 상승세, 왜?



최근 주택시장에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며 청약률 신기록이 나오고 기존주택 거래량도 급증했지만 주택가격은 거래량 회복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투자목적이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주목적 주택구입'으로 바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본다.

계절적 비수기를 잊은 듯 연초부터 주택매매거래가 활발하다. 부동산 3법 통과와 가격상승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 못지않다. 그러나 실제 지표로 나타난 최근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은 과거 주택시장에서 보여 온 패턴과는 사뭇 다르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수요의 중심축이 매매차익을 겨냥한 투자목적에서 거주목적의 실수요층으로 옮겨간 탓이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06년 수준으로 회복

1월 서울 아파트매매거래량이 6,869호(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 신고기준)로 집계됐다(잠정). 지난 10년 간 매년 1월 평균 거래량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거래절벽을 반복했던 예년 1월과는 다르게 올해 주택시장은 연초부터 활발한 모습이다.

한편 2014년 전국 아파트매매거래량은 71만호를 기록해 주택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2006년 수준(72만호)에 근접했다. 연간 거래량이 50만호까지 감소하면서 거래부진을 우려했던 2012년에 비하면 꽤나 양호한 실적이다. 특히 수년 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던 서울의 2014년 연간 거래량은 9.2만호로, 2012년 4.5만호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단 거래규모로만 보자면 최근의 주택시장 활황세를 나타내었던 2006년이 부럽지 않을 만큼 회복세가 뚜렷하다.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쳐 과거와는 사뭇 다른 시장상황

그런데 주택매매가격을 놓고 시장상황을 판단하자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가격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지난 2006년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13.8%(전년 말 대비, KB국민은행 주택 가격 지수 기준), 서울에서는 24.1%에 달했다. 반면 2014년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2.4%, 서울 1.1%에 그쳤다. 대체로 하락세를 기록했던 2012년(전국 -0.2%, 서울 -4.5%)이나 2013년(전국 0.3%, 서울 -1.8%)에 비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2006년 수준으로 증가한 거래량 회복세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2014년 들어 잇따른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반등이 뚜렷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매매가격 추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던 과거의 주택시장 활황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투자수요 유입이 제한된 가운데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결과

보통 주택거래가 늘면 급매로 인한 할인매물이 소진되고, 주택가격을 떠받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을 관찰해 보면,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변동 사이의 관계는 주택매수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가, 즉 주택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주된 수요층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가령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인 경우 주택매도자의 호가를 받아들이기 가능성이 실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시장상황에서는 다소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다. 즉, 투자수요자의 경우 실수요자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고, 그 결과는 거래가격 상승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최근 주택구입에 나선 사람들을 보면, 투자목적이라기보다 실제 거주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 가격에 지쳐, 혹은 시중에서 전세물건을 구할 수 없어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LTV규제완화로 자기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 데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여건 개선 또한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결정을 부추겼다.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호가의 폭은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에 비해 훨씬 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내 실수요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주택가격은 더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 주택시장 내 실수요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주택거래량과 가격상승세의 상이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량 증가를 가격상승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한 시장 환경과 수요특성을 감안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분간 전세수요의 자가 전환이 시장흐름을 주도할 전망

지난 2년간 주택시장 회복세의 가장 큰 동인이 각종 규제완화를 비롯한 정부 정책효과였는데 반해 앞으로 남아있는 정책카드는 마땅치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주택 투자수요는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다. 반면 재건축 이주수요, 월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걸 보면 전세임차인의 자가전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전체 주택시장 내 실수요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주택거래량과 가격상승세의 상이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량 증가를 가격상승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한 시장 환경과 수요특성을 감안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 **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4년
400만원



2015년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세제혜택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 가입 후 1년 경과시 10% 할인 적용

운용권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 연금저축, DC기반 추가납입금 한도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적립한 자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aw.com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대투증권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시니어 패셔니스타

일본에는 '가모꼬레'라는 아주 특별한 패션쇼가 있다.
 일반 중년 여성들이 한껏 모양을 내고 자신의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패션쇼인데,
 지난 2012년에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는 도쿄의
 스가모 상점가에서 시작해,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매년 두 번씩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가 됐다.
 올해는 4월과 6월, 2번의 쇼를 준비하고 있다.



'가모꼬레'를 기획한 호리이 씨는 스가모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가모 토박이로 최근 이곳을 찾는 중년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젊고 건강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 못지 않은 멋쟁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가 축제 때 '가모꼬레'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스폰서도 없이 자비를 털어서 준비한 작은 행사였지만, 참가한 시니어모델들은 물론 그녀들을 응원 나온 가족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행사를 스가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확대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과거 3.11동북지진으로 피난을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 상인들의 의상협찬을 받아 감동적인 패션쇼를 했고, 올 6월에 개최되는 두 번째 쇼는 멀리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 매회 행사 후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문이가 쇄도해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아니면 부부가 같이 런웨이를 걷는 등 '가모꼬레'는 행복한 가족 행사로도 자리를 잡고 있다.

아마존 서적 Top 10 안에 든 '시니어 여성 사진집'

'가모꼬레'와 동시에 최근 일본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멋쟁이 시니어 여성들의 사진을 모은 'Over 60 Street Snap(언제까지나 부러움을 받는 여성)'이라는 사진집이다. 이 사진집은 카메라맨인 마사 씨와 디자이너 마리 씨가 만든 L'ideal(불어동경)이라는 인기 블로그에 포스팅한 사진들을 모아 출판한 것인데, 출판하자마자 아마존 서적부문 10위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카메라맨인 마사 씨는 뉴욕에 갔을 때 사진작가 'ARI SETH COHEN'의 뉴욕 멋쟁이 시니어 레이디들을 모델로 한 'Advanced Style'이라는 사진집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귀국 후 친구인 마리 씨와 함께 도쿄의 긴자나 오모테산도에서 만난 세련된 중년여성들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진과 함께 그녀들만의 코디법이나 인생관 등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소개하는데, 이것이 젊은 팔로워들에게 패션뿐 아니라 인생의 힌트까지 주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필자도 당장 서점에 들러 이 책을 찾았다. 과연 책 속의 시니어레이디들은 그 누구 하나 비슷한 스타일이 없었고, 유행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내며 모두가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다. 예순이 넘어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다른 패션잡지처럼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다. 나이나 주변의 시선은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나이를 먹는다든 것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도 얻었다. 왜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노년이 충분히 아름다운 이유

한국에서 동안이 대세인 것처럼, 사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나이를 먹어도 신비할 만큼 늙지 않고 20대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소위 '미마녀(美魔女)'라 불리는 40~50대 미인 여성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그녀들을 모델로 한 패션잡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잡지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가득할 뿐, 있는 그대로 스스로를 인정하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에 비해 사진집 'Over 60 Street Snap' 속의 중년 여성들은 염색도 하지 않는 백발에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한 모습이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이와 상관 없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당당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봄철에 화려하게 만개하는 벚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하나 하나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어 절경을 이루는 단풍들처럼,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다.
 여성들 못지 않게 패션을 즐기는 시니어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철없는 멋쟁이 할아버지'를 콘셉트로 하는 'MADURO'나, 일본어로 '지이상-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Z'와 같은 남성 패션잡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마사 씨와 마리 씨도 'Over 60 Street Snap'에 이어 멋쟁이 시니어 남성을 촬영한 사진집을 조만간 출판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요즘, 노인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끝으로 'Over 60 Street Snap' 속의 한 70대 여성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싶다.
 "멋스러움은 너무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행을 좇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 온 방식대로 날 표현하는 거죠. 나는 나니까..."
 이 인터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으면 서글퍼지는 것은 어쩌면 그 동안 시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스스로를 위했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나 기대에 따라 살아온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참고: <https://idealjapon.wordpress.com/>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한 외국어 공부법

A d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얼마 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외국어 공부를 꼽았다. 특히 그는 불어, 중국어, 아랍어 중 하나를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렇듯 외국어 공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게 사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언어공부에 도전한다면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인생 2막의 무대를 넓혀보자. 단기간 외국어 마스터법, 하인리히 술리만 따라하기!

독일의 고고학자인 '하인리히 술리만'은 15개의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인리히술리만 자서전'에 따르면 14세 때에 사환으로 고용된 그는 일하는 사이에 조금씩 시간을 내어 공부를 시작해서 15개 국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6개월만 투자하면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마스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모든 공부가 그렇듯 목표와 계획은 필수. 자신이 재미와 흥미를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다음은 외국어 공부에 앞서 우선 실현 가능 목표를 세워보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기간은 얼마동안 잡을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 읽고 외우기

독일인이었던 술리만의 외국어 공부법의 핵심은 읽고 외우기이다. 항상 관심 있는 외국어 책을 갖고 다니면서 책 내용을 전부 암기했다고 한다.

골드 스미스의 '웨이키피드의 목사'와 스콧의 '아이반호'를 모두 암기하면서 6개월 동안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게 됐고, '텔레마크의 모험'과 '폴로비르자니'를 암기해 6개월 만에 프랑스어를 마스터했다.

절대 번역은 하지 마라

술리만은 외국어 공부 당시 절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해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어에 이어 프랑스어를 이렇게 마스터했고, 이 방법에 의해 기억력이 강해지자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쓰거나 말하는 데 6주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매일 1시간을 투자하라

술리만의 언어공부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매일'이다. 그는 매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당언어의 책을 소리 내어 읽었다. 일요일에는 영국 교회로 나가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설교 한 마디 한 마디를 낮은 소리로 따라했다. 심부름을 다닐 때도 반드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암기하며 다녔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우체국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등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서전에서 '나는 배움으로 언제나 지나친 흥분 상태'였다고 회고한 술리만은 흥분상태로 잠을 잘 자지 못했고, 그 시간을 활용해 저녁에 읽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했을 정도다.

관심 있는 소재로 작문해 교사에게 확인 받아라

술리만의 공부법에 작문을 빼놓을 수 없다. 술리만은 매일 1시간씩 공부하며 자신이 흥미 있는 것에 관한 작문을 한 다음 교사에게 확인을 받고 수정지도를 받았다. 특히 수정된 작문을 그날 밤에 바로 암기해 다음 시간에는 암송을 하는 방법으로 외국어를 마스터했다고 한다. 작문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돈을 들여서라도 외국어 교사를 곁 옆에 두고 적극적으로 외국어 공부에 임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수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자산운용(주)는 별도 법인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카드